



1월 난방비 상승의 원인은 기온 하강에 따른 도시가스·지역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,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난방비 부담 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2.27. 한국경제 「“온도 확 낮았는데 40만원 나왔어요”... 난방비 폭탄 ‘비명’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‘1월분 난방비 폭탄’을 호소하는 가구가 속출하면서 난방비 절약법이 눈길을 끈다.” “지난해 여름에 이뤄진 ‘난방비 인상’의 효과가 겨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.” “1월분 요금이 더 많이 나온 건 통상 12월보다 1월이 더 추워 난방기 가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입장>

1. 난방비 증가 관련 현황

- '25.1월 난방비가 전월 대비 상승한 것은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'24.12월 대비 '25.1월에 기온이 하락하고 한파가 지속 발생하여 난방 사용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.
 - * 전국 평균기온(기상청) : ('23.12) 2.4℃, ('24.1) 0.9℃, ('24.12) 1.8℃, **(‘25.1) -0.2℃**
 - ** 중부지역(서울경기·강원·충청) 평균 한파일수(기상청) : ('24.12) 0.9일 → **(‘25.1) 2.7일**
 - '25.1월 수도권 지역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량은 98,927만㎥(추정치)로, '24.12월 대비 26%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기('24.1월)에 비해서도 4% 증가하였습니다. (총 824만 가구)
 - * 수도권 주택용 도시가스 총 판매량(만㎥) : ('24.1) 95,412, ('24.12) 78,320, **(‘25.1) 98,927^{추정}**
 - ** 가구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(㎥) : ('24.1) 115, ('24.12) 94, **(‘25.1) 120^{추정}**

- 지역난방의 경우에도, '25.1월 주택난방용 열 판매량은 248만Gcal로, '24.12월 대비 10.7% 증가하였습니다. (총 188만 가구)

* 주택난방용 열 총 판매량(만Gcal) : ('24.12) 224, **(25.1) 248**

** 가구 평균 열 사용량(Mcal) : ('24.12) 1,192, **(25.1) 1,318**

- 도시가스, 지역난방 모두 지난해 여름 요금이 인상되었으나, '24.12월과 '25.1월은 이미 인상된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월별 요금 차이는 사용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* 도시가스 인상('24.8, 서울시 주택용 기준) : 20.8854 → 22.2954원/MJ (6.8% ↑)

** 지역난방 인상('24.7, 주택난방용 기준) : 101.57 → 112.32원/Mcal (9.5% ↑)

- 가스공사에 따르면 '25.1월 가구당 난방비는 12.6만원으로 '24.12월 대비 2.8만원 증가하였고,

* 가구 평균 난방비(가스공사, 추정) : ('24.12) 9.8만원 → **(25.1) 12.6만원**

- 지역난방도 전용 85㎡ 기준 '25.1월 가구당 난방비는 14만원으로 '24.12월 대비 1.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, 이는 모두 사용량 증가량과 비례한 수준입니다.

* 가구 평균 난방비(지역난방공사, 전용 85㎡ 기준) : ('24.12) 12.7만원 → **(25.1) 14만원**

- 따라서, '25.1월 난방요금 증가는 예년, 월별 기온 차이에 따른 난방 사용량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

2. 정부 대책

- 정부는 가정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절감한 경우, 절감량에 상응하는 캐시백을 지급하는 '도시가스 캐시백'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동절기(12월~3월) 도시가스 사용량을 작년보다 3% 이상 절감할 경우, 절감률에 따라 1㎡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1㎡당 캐시백 : (3% 이상 ~ 10% 미만) 50원 / (20% 미만) 100원 / (30% 이하) 200원

** 동절기 평균 400㎡ 사용가구 기준, 사용량 10%(40㎡) 절감시 캐시백(4,000원)과 요금절감액(37,720원)을 합쳐 총 41,720원 요금 감소(378,460→336,740원)

- 3월 31일까지 전용 홈페이지(k-gascashback.or.kr)를 통해 도시가스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캐시백은 동절기 종료 후 사용량 집계 및 절감량 산정과정 등을 거쳐 7~8월 경 지급될 예정입니다.

* 3월 31일까지만 신청하면 동절기 전체기간 소급 적용

- 이와 함께,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시행하고 있습니다.

- 기초생활수급가구,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, 지역 난방 등 주요 난방 에너지원의 요금 할인을 시행하고 있으며,

* 동절기(12월~3월) 최대 59.2만원 할인

- 등유, LPG 등을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에 대해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

* (지원대상)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, 장애인 등 기후민감계층

(지원단가) 36.7만원, (지원예산) 4,797억원, (사용기간) 7월~다음연도 5월

- 이러한 단기적인 지원과 함께,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이용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단열시공, 창호·바닥공사,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사업과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전력·도시가스·지역난방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,

-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지속 확대,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하겠습니다.

- 한편, 개별 가정에서는 적정 실내온도(20℃) 유지, 에어캡, 문풍지, 커튼 등을 통한 틈새 열손실 줄이기, 노후 보일러 청소 및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등을 통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에너지정책국 에너지효율과	책임자	과 장 김현철	(044-203-5140)
		담당자	사무관 최승효	(044-203-5141)
	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	책임자	과 장 강경택	(044-203-5232)
		담당자	사무관 윤철희	(044-203-5216)
	전력정책국 신산업분산에너지과	책임자	과 장 권영희	(044-203-3920)
		담당자	사무관 현성보	(044-203-3921)
	에너지정책국 에너지효율지원팀	책임자	팀 장 김도현	(044-203-5160)
		담당자	사무관 오병주	(044-203-5161)



참 고

겨울철 난방비 절약 실천요령

겨울철 난방비 절약

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!



20°C

한달 난방비 절약! 사용량 38% 36,101원 절감!

겨울철 적정
실내온도 20°C 유지

한달 사용량 5.5%, 5,227원 절감



샤워시간
5분 줄이기

한달 사용량 7.2%, 6,826원 절감



에어캡(벽복이), 문풍지,
커튼 활용 틈새 열손실 ↓

한달 사용량 5.5%, 5,227원 절감



사용하지 않는 방
분배기 밸브 잠그기

한달 사용량 4.4%, 4,160원 절감



보일러 노후배관 쌓인
오염물질 제거

한달 사용량 5.0%, 4,760원 절감



노후보일러를
고효율 보일러로 교체

한달 사용량 10.4%, 9,901원 절감



가스요금 줄이고, 캐시백 챙기자!

| 참여대상

-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

| 신청 및 절감기간

- '24년 12월 ~ '25년 3월

구글, 네이버 검색

도시가스 절약 캐시백

<https://k-gascashback.or.kr>

| 지급액

- 절감량에 따라 50~200원 / m³ (전년 동기 대비 3% 이상 절감 시 지급)
평균 400m³ 사용 기준(가스요금 378,460원, 서울기준)

| 절감 예시 |

절감률	요금절감액	캐시백	절감총액	예상요금
5%(20m ³)	18,860원	1,000원	19,860원	358,600원
10%(40m ³)	37,720원	4,000원	41,720원	336,740원
20%(80m ³)	75,440원	16,000원	91,440원	287,020원



산림통상자원부



한국에너지공단



한국전력공사



한국가스공사



한국지역난방공사



한국수자원공사



KOEN 한국에너지



KOMIPO 한국중부발전



WPP 한국서부발전



한국남부발전



한국동서발전



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



새마을운동중앙회



에너지이시애틀



한국기후·환경네트워크



한국소비자연맹협회



한국여성단체협의회